

京都基本構想

교토기본구상



京都市

2025년 12월

목차

서문	1
제1장 교토기본구상 수립 배경	3
제1절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세계사를 담당하는 도시를 목표로	3
제2절 교토시 기본구상—21세기의 도래를 내다보며	3
제3절 교토기본구상 수립—「도시의 이상」으로 회귀하며	4
제2장 교토의 모습	5
제1절 유구한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5
제2절 역사의 중첩, 문화의 깊이, 사람의 유대감	6
제3절 절도와 금지에 기반한 열린 도시의 모습	7
제4절 세계 유수의 학업과 예술의 중심지	9
제3장 세계·일본·교토시의 현재와 미래 과제	10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 영향	10
제2절 일본경제의 동향과 교토시의 산업	11
제3절 환경문제·자연재해의 심각화와 자연과의 관계 희박화	12
제4절 기타 국제적 과제	13

제4장	우리 교토시민이 지향하는 도시	14
제1절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	15
	(1) 진정성 (혼마몬)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창조한다	15
	(2) 세계의 문화와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한다	16
	(3) 몰입과 감동이 넘치고, 계속 배울 수 있다	16
	(4) 평온과 고요함 속에서 자아와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다	17
제2절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함을 품게 하는 도시	17
	(1) 겸허하게 자연과 관계를 이어가는 곳	17
	(2) 재해나 감염병 등의 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하는 곳	18
제3절	자타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시	18
	(1) 다층적이고 느슨한 관계를 이어가는 곳	18
	(2) 서로 돕는 일상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곳	19
	(3)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가치관을 서로 존중하는 곳	19
제5장	교토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20
	미래를 향한 질문	23

서문

우리 교토시민은 교토시가,
우리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간성 [1]을 회복 [2]할 수 있는 도시,
자연에 대한 경외 [3]와 감사함을 품게 하는 도시, 그리고,
자타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해 나간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 살고 미래를 살아간다.

교토시는 헤이안쿄(平安京) 성립으로부터 120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인류 문명에서도 유례없는 역사도시·문화도시가 되었다. 이 도시를 중층적으로 빛내는 각 시대의 사적도 인간의 본질을 체현해온 공예(工藝) [4] 나 예도(藝道)도 역사의 위대한 산물일 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의 애착과 창의로 가득 찬 일상의 소중한 궤적에 다름 아니다. 이 도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유·무명의 무수한 선인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토시민은 이러한 인간적 유산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계승자이기도 하다. 교토시민은 이 계보에 속해 있는 의의와 행복을 음미하면서 절도와 금지 아래 선인들의 영위(營為) [5] 의 결정을 미래에 전승해 나갈 책임을 다해 나가하고자 한다.

[1] 인간이 인간인 연유(이유, 근거), 인간다움.

[2] 개념적이고 전 인격적 (종합적) 차원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회복. 일반적인 의미로 건강 상태 및 개별 기능에 사용되는 “회복” 과 구별된다.

[3] 자신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의가 공존한 정신 상태를 가리킨다.

[4] 본 기본구상에서는 ‘예(芸)’(본래 뜻은 풀을 “깎다”)라는 한자가 아니라, ‘예(藝)’ (본래 뜻은 나무나 풀을 “심다”)라고 하는 구자체 (旧字体)를 사용한다.

[5] 운영함을 가리키는 말로 ‘위’를 더함으로서 보다 주체적인 의미를 함의한다.

인간은 자연에 의해 살고 자연에서 숨쉰다.

교토시는 신앙부터 미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풍요로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육성해왔다. 영원을 체현하는 산들에 둘러싸이고 맑은 물의 은혜로 가득 찬 이 도시는 자연과 인간의 근원적인 불가분성과 일체성을 사상적 토양으로 하고 있으며 이 도시의 문화가 이 수맥과 토양에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 교토시민은 이 도시가 길러온 자연관—따라서 이와 불가분한 인간관—을 세계에 제시해 나감과 동시에 다른 국가·지역이나 문화권·사상권과의 향창(響創, 함께 울림으로써 창조함) [6] 아래 인간과 인간의 영위인 과학이나 경제, 그리고 자연이 진정으로 공생(共生)하는 미래에 공헌하고자 한다.

인간은 공동체에 의해 살고, 공동체로 산다.

교토시는 단기적·개별적 이익 추구가 편중되는 시대에도 장기적인 공영을 희구하면서 오늘날에는 비합리·비효율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적 연결을 보전해왔다. 이 도시에는 자연이나 직업뿐만 아니라 학업, 제사, 수련, 나아가 이름도 없는 관계에서도 연결되는 다채로운 공동체들이 수없이 숨쉬고 있다. 복잡하고 섬세하며, 그렇기에 사랑스럽기도 한 살아 숨쉬는 인간관계야말로 수많은 이어짐과 중첩을 품은 이 도시를 만들어 왔다.

우리 교토시민은 앞으로 25년 동안 국내외 인구구조의 변화, 언어 장벽의 해소, 나아가 이에 따른 경제구조나 사회규범의 변용 속에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새로 넓혀가는 이 도시에서 우리의 일상을 감싸온 따뜻한 숨결 아래 서로의 역사, 문화, 자연, 그리고 사람의 연결을 함께 존중해 나가면서 인류사회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6] 기초(起草) 작성에 있어서 유식자와의 논의에 따른 조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창(共創)'을 감안하여 각인의 내면에서 공간으로, 나아가서는 거리 전체까지 자기와 타자간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 확대해가는 모양을 표현했다.

제1장 교토기본구상 수립 배경

제1절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세계사를 담당하는 도시를 목표로

‘도시는 이상을 필요로 한다. 교토시의 최상위 도시 이념으로 1978년에 수립된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은 도시의 진수를 담은 이 한 문장에서 비롯된다. 해당 선언은 이어서 스스로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 세계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이상의 실현을 향한 시민의 노력에 의해 도시가 세계사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며 [7], 영원히 새로운 문화도시로서 평화 속에서 자유로운 세계 문화교류의 중심에 선다는 교토시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민’의 결의를 표명한 것이며,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 교토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제2절 교토시 기본구상—21세기의 도래를 내다보며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에서 내세운 이념 아래 1983년에 시정 최초가 된 이 교토시 기본구상은 그 후 1999년에는 시민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본구상으로 각각 수립하였다.

21세기의 첫 반 세기를 내다본 해당 구상은 ‘우리 교토시민’을 주어로 하여 교토시민의 근저에 있는 가치관을 ‘감식안’ ‘장인정신’ ‘시도’ ‘정수’ ‘환대’ ‘절약’이라는 6가지를 특기로 재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를 재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긍지와 책임감에 기반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호소한 것과 수립 과정에서 있었던 숙의와 맞물려 새 시대에 맞게 시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만들기의 토양이 되었다.

[7] 본 기본구상은 ‘자기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2장에서, ‘세계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3장에서, ‘이상 실현을 위한 시민의 노력’을 제4장과 제5장에서 이어지는 구성으로 했다.

제3절 교토기본구상 수립—「도시의 이상」으로 회귀하며

지난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본구상 수립 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속안에 해당하는 본 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2025년 현 시점이야말로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에서 언급된 ‘도시의 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시대 인식과 과제 의식이 있다.

1999년 교토시 기본구상 수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글로벌화의 진전, 인터넷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보급, 기후변화의 가속화, 자연재해의 심화, 감염병 유행, 전쟁·분쟁 발생과 장기화, 다양한 사회적 분단의 현재화,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수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해왔다. 본 기본구상은 시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는 오늘날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이라는 도시의 이상에 다시 한번 회귀하며, 교토시와 우리 교토 시민의 향후 25년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동시에 교토시 기본구상의 계보를 미래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제2장 교토의 모습

제1절 유구한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이 도시의 역사는 794년 헤이안쿄 성립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교토시는 1889년 시제 특례에 의해 성립되어 1898년에 탄생했다. 이후 행정구의 분합을 거듭하면서 2005년에 1,200년전의 헤이안쿄 건축 당시 목재 공급을 담당했던 구 게이호쿠초(京北町)와의 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지역으로 형성되었다. 인구 백수십만 명의 대도시이면서도 시역에 풍부한 산림과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토시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도시에서 살아온 선인들은 유구함을 체현하는 산들을 바라보며, 가모가와(鴨川)·가츠라가와(桂川)·비와코 소수이(琵琶湖疏水)에서 우물물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물과 함께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하고 일체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자연관을 사상적 토양으로 길러왔다. 음식, 건축, 경관, 의복에서 예도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문화양식이 저마다 사계절의 정취를 두르며 이와 같은 자연관을 품고 오늘날까지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 교토시민과 교토시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에 다채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제2절 역사의 중첩, 문화의 깊이, 사람의 유대감

이 도시는 일본 역사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그 궤적은 결코 단일적·직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조정(朝廷)·막부(幕府)라는 정치체제, 신도·불교·유교를 비롯한 종교사상, 이들과 연관된 경제활동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전란 등의 위기를 거쳐서도 문화의 힘으로 재건을 거듭하며 다층적이고 다원적으로 짜여온 긴 역사의 현재가 우리의 교토시이다.

이러한 역사의 중첩 속에서 성립해온 예도나 무도, 공예 등의 문화의 근저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을 향한 추구를 읽어낼 수 있다. 신체와 마음, 자기와 타자, 인간과 자연을 본래적으로 불가분하다고 파악하는 그 정신성은 다도나 화도, 노가쿠(能楽)나 무도, 이들의 도구나 건축 등을 경유하여 다양한 생활양식에서도 체현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름이 전해지는 명인이나 장인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이들의 창의와 많은 사람들의 애착과 주체적 노력에 의해 계승되어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쌓인 역사와 문화의 중첩과 깊이는 오랫동안 새로운 인간관계의 원천이자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인간관계가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왔다. 교토시의 역사와 문화의 중첩과 깊이는 오늘날 경시되고 있는 살아 숨쉬는 사람 간의 유대감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 이어짐을 과거나 미래와 불가분한 것으로 잇게 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토시민은 선인들이 만들어온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미래로 잇게 하는 책임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제3절 절도와 공지에 기반한 열린 도시의 모습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각 시대와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도와 공지에 의해 지탱되어왔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생애를 바쳐 전통의 정수 보전과 계승에 진력해온 선인들의 공지는 그 작품뿐만 아니라 경관에까지 새겨져 이 도시의 숨결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숨결야말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협동이나 향창(響創, 함께 울림으로써 창조함)을 가능하게 하는 절도를 사람들의 내면에 길러왔다. 이 양자에 기반하여 시간을 들여 배양되는 신체적^[8] 이고 암묵지(暗默知)^[9] 적이며, 그렇기에 절묘한 거리감과 그 사이의 묘미(아와이^[10]) 표면적인 말이나 단기적인 경제 합리성을 넘어선 인간적 신뢰의 기반을 이 도시에 주고 있다.

이 도시는 전통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선구와 진취 정신과 창의성이 넘치는 유희심에 의해 다양한 문화와 산업을 창출해왔다. 수많은 예도와 공예, 교토요리와 청주가 길러진 것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계 유수의 학술도시이며, 또한 지역 남부에 대표되는 것처럼 첨단 기술산업이 집적된 산업 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조와 탐구의 기반을 담당해온 것은 절도와 공지에 기반한 열린 도시 기질에 다름 아니다. 유행에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분야나 지역을 넘어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창발을 추구하는 태도는 바로 수파리(守破離^[11]), 기본을 넘어 자신만의 경지를 구축함)의 체현이라 할 수 있다.

[8] 반드시 언어나 인식을 통하지 않는 신체감각으로 몸에 새겨진 경험이나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9] 말로 명확하게 표현 또는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정의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말을 통한 지식으로서는 전달·습득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10] 유동적인 움직임 안의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경계에서 오는 모호함을 의미한다.

[11] 일본의 예도(藝道)와 무술(武道)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예(技藝)의 습득을 3단계로 설명하는 개념. '수(守)'는 형태(形)나 스승의 가르침을 지킴으로서 기본을 신체에 익히는 단계, '파(破)'는 이들 가르침을 비판적·회의적으로 깨면서 의도적으로 일탈하는 단계, '리(離)'는 '수', '파'의 어느 태도에서나 벗어나서 독자성을 확보하여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단계를 뜻한다.

우리 교토시민의 일상생활 또한 이 열린 도시 속에서 영위되고 있다. 거리에는 개성 넘치는 상점이 늘어서 있으며, 지나가면서 보거나, 멈춰 서서 바라보거나, 익숙한 가게에 들르는 등의 양상을 수시로 볼 수 있다. 강변에서는 사람들이 뛰고, 걷고, 달리고, 앉고, 책을 읽고, 수면을 바라보고, 나무를 만지는 등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사람들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소를 주고받고 문득 말을 나누고 공통의 친구를 발견한다. 이러한 일상이 도시 곳곳에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

제4절 세계 유수의 학업과 예술의 중심지

이 도시는 뜻 있는 선인들의 노력 아래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학술기관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 지켜왔다. 대학의 도시·학생의 도시로 불리며,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시내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경험이 있으며, 또한 15곳의 사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상징되듯이 우리 교토시는 학술과 문화·예술 쌍방에서 세계 유수의 도시 즉 학예(學藝) [12]의 중심지이다.

이 도시를 학예의 중심지로 만들어온 것은 포상이나 등록 대상이 된 사람들이나 사찰(寺)과 신사(社), 그리고 성(城)뿐만이 아니다. 밤낮 수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제, 한 곳 차이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 진수를 찾아내는 민간 애호가와 같은 사람들의 일상의 축적이야말로 진리의 탐구나 인간의 극치 체현을 지향하는 이 도시의 학예를 깊게 해온 것이다. 학예를 둘러싼 이러한 유명·무명의 사람들, 즉 교토학예중(京都學藝衆) 또한 우리의 교토시가 세계에 자랑할 인간적 유산이나 다름없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 도시의 학예와 이를 담당하는 학예 공동체, 세계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교토시는 유구한 자연, 역사의 중첩, 문화의 깊이, 사람의 이어짐, 절도와 긍지, 그리고 열린 도시에 의해 펼쳐지는 세계 유수의 학업과 예술의 중심지로서 이 도시가 지키고 길러온 학예와 교토학예중을 언어나 문화적 배경을 넘어 인류사회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2] 학술과 예술의 총칭(제4장 서두 부분 참조).

제3장 세계·일본·교토시의 현재와 미래 과제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 영향

21세기의 첫 25년 동안 세계 인구는 증가의 길을 걸어왔다. 한편 이 기간 국내 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돌아섰으며, 2024년 현재 약 1억 2천만 명, 2050년대에는 1억 명을 하회할 전망이다. 2025년 현재 이미 내수 축소,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비 증대 등의 영향이 현재화되고 있다.

교토시 인구는 오랫동안 147만 명 전후로 추이되어 왔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 국면에 진입하여 특히 취업이나 결혼·육아 등의 라이프 스테이지의 변화에 따른 젊은층의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시내 각 지역의 인간관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긴 역사 속에서 길러온 주민자치 전통과 서로 돕는 정신과 실천의 양면을 희박하게 만들고 고립·고독 대응을 비롯한 복지 유지·확충과 각 지역 역사에 뿌리내린 행사 및 이를 빛내는 유형·무형 문화의 보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수의 대학가인 교토시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많은 영향이 예견되는 바, 도시 전체의 모습도 큰 변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일본경제의 동향과 교토시의 산업

일본경제는 20세기 말부터 불황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에도 2010년까지 GDP 세계 2위를 유지해왔으나, 인구감소·저출산 고령화와 성장산업에서의 일본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2025년에는 GDP가 세계 4위가 되었다. 이 기간 소득격차 확대와 노동력 감소의 심화, 연공서열과 종신고용 등 기존 고용형태의 변화, 노동시간에 관한 규제의 엄격화, 이직과 부업·겸업의 일반화, 여성의 사회진출 진전 등도 두드러졌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과 보급이 눈부시며, 향후 산업 및 고용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시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견지하는 한편, 이 도시의 경제는 물론 시민의 생활과 문화를 지탱해온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노동자·후계자 부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과 신규사업 창출·확대를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대학 등에서의 최첨단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문화와 시장의 적절한 접속 등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토시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 25년간 20% 이상 증가하여 2008년에는 5,00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부터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어 현재는 특히 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편, 특정 관광지에 방문객 집중, 대중교통 혼잡, 간선도로 정체, 문화와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문제, 전통적인 거리 풍경과 상거래의 변화 등 시민의 생활과 생업에 대한 악영향도 생기고 있다. 교토시의 역사와 문화가 표면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도 보이지만 앞으로도 국내외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역사와 문화의 깊이와 본질을 다채로운 사람들에게 전할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사회 전체에 노동에 관한 가치관이나 규제는 매 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도제제도 아래 오랜 수행을 거듭한 후 일생을 바쳐서 이어지던 전통산업과 전통 예술의 후계자 부족도 역풍을 맞고 있다.

제3절 환경문제·자연재해의 심각화와 자연과의 관계 희박화

지난 25년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한층 더 현재화된 시대이기도 했다. 도시화, 도시부로의 인구 집중, 기후변동, 생물다양성 상실 등에 대응하고자 국가의 틀을 넘어선 지구 규모의 협력이 지향되어왔으나, 정치·경제·종교 등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 등 국제협조에 대한 과제가 가시화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농촌 쇠퇴, 도시 인구 집중, 도시 거주환경 악화, 교외의 이차·이산의 다면적 기능 저하나 상실 등의 과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방재·감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토시에서도 역사·문화를 지탱해온 자연의 위기가 가시화되어왔다. 산록부의 도시 구역 확대, 산간지역의 과소·고령화, 기록적인 호우와 폭염일 증가 등에 더하여, 교토의 축제인 기온마쓰리(祇園祭)의 장식과 교토 전통 요리에 쓰이는 제주조릿대(치마키자사)와 축제인 아오이마쓰리(葵祭)의 상징인 식물인 비비추(후타바아오이) 등 교토 문화를 지탱해온 재래종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비롯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도 변했지만 이차·이산의 열화가 농림업의 부진과 표리일체이듯이 자연환경의 변화는 문화와 역사는 물론 산업 나아가 시민의 일상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제4절 기타 국제적 과제

2020년부터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신체적·물리적 활동이 불가결한 많은 문화를 존속 위기에 몰아넣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많은 사업자가 폐업·폐업에 내몰렸다. 이 기간 국제기관과 국제적 틀의 한계, 국가 간 경제력·기술력·행정 대응능력의 격차, 백신 등 개발과 분배에 있어서의 기업 간 경쟁 등은 곳곳에서 현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21세기를 맞이해도 여전히 전쟁과 분쟁의 비참함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일본, 그리고 교토시는 전후 오래 쌓아온 세계 각국과의 신뢰와 존경에 기반한 상호이해 심화 나아가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 여지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10년대부터는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를 중시한 투자,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DEI(다양성·공정성·포괄성) 등 세계 전체의 공익 추구를 향한 포괄적 노력도 추진되어왔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과제와 한계가 있어, 2025년 현재에는 자국 제일주의로의 회귀 등 반동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25년 동안은 세계 전체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기반한 국제정치·국제경제상의 역학구조 변화를 내다보면서 협조를 향한 새로운 기운과 체제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제4장 우리 교토시민이 지향하는 도시

우리의 교토시는 지역에 뿌리내린 장인과 달인, 세계를 이끄는 연구자와 기술자, 예술의 애호가, 역사와 전통을 짚어낸 가문과 명장 등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전 세계 사람들의 경의와 애착과 교류하며 만든 인간관계를 통해 인류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세계 유수의 학예의 중심지이다. 학술, 예술, 그리고 그 외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인간적 영위에서 진리의 탐구와 전통의 계승과 창조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 토양이 된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 우리 교토시민의 대체 불가능한 재산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내 각 지역에서는 입장과 직함을 넘어 이 도시의 일상과 비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보면서 청소를 한다. 재해와 화재에 대비하여 지역을 돌아보고, 지역 제례에 봉사한다. 찻집과 선술집에서 담소하고 화랑과 고서점에서 이야기하며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 자체가 또한 이 도시의 매력을 중층적으로 지탱해왔다.

우리 교토시민은 이 도시 곳곳에 뿌리내린 학예를 통해 지역, 나아가 시대를 넘어 연결된 이러한 사람들, 즉 교토학예종과 함께 세계문화자유도시라는 도시의 이상 체현을 통해 인류사회의 미래에 공헌해 나간다. 이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간과 자연, 자기와 타자를 본질적으로 불가분하다고 파악해온 것을 감안하여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도시, 자타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시를 세계에 제시해 나간다.

제1절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

(1) 진정성(혼마몬)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창조한다

우리 교토시민은 선인들로부터 계승해온 사상 선의후리(先義後利)^[13]·불역유행(不易流行)^[14]·자리이타(自利利他)^[15] 단기적 이익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세월을 들여 자신의 기량을 숙달시키면서 시외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고 또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자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며 계속해 나간다. 이때 이 도시가 육성해온 절도와 금지 아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성(ほんまもん, 혼마몬 - 관서 지방의 방언)을 분별하는 감성을 갖고 닦으며, 계속하여 이를 다음 세대와 세계에 전승해 나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연마하는 동시에 인근 도시와 협동하면서 진정성(혼마몬)의 다양한 형태를 배우고 받아들이고 창조하여 경제 나아가 도시 전체의 활력 원천으로 삼아간다. 더하여 이 도시의 학예를 다양하게 담당하는 교토학예중과 학역^[16]·지역의 연결을 깊게 함으로써 이 진정성(혼마몬)과 이를 분별하는 감성의 다음 세대로의 계승·교육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 연결을 시외 나아가 국외에 사는 사람들과도 엮어내면서 학역·지역을 지속시키기 위한 토양으로 삼아간다.

[13] 우선은 ‘의(義)’ (사람으로서의 의리나 도리)를 실천하고 있으면 ‘이(利)’ (자신들의 이익)는 뒤에 따라온다는 생각. 시부자와 에이이치(渋沢栄一)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기업윤리의 표어로 내걸었다고 한다.

[14] ‘불역(不易)’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과 ‘유행(流行)’ (시대에 따른 변화의 표현)의 양자의 근본은 하나이므로 양자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생각. 마츠오바쇼(松尾芭蕉)가 하이카이론(俳諧論)에서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 자기의 ‘리(利)’ (이익, 쾌락, 행복)와 타인의 ‘리(利)’는 본래 일체이므로, 타자를 위해 하는 것이 본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원래는 불교의 가르침.

[16] 일반적인 초중학교 학구 외에 다양한 배움의 장소와 기회를 바탕으로 한 인간 관계를 말한다.

(2) 세계의 문화와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한다

우리 교토시민은 열린 도시 속에서 세계와 문화교류를 거듭하면서 국제사회 나아가 인류사를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해간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어 가는 앞으로의 시대야말로 이 도시의 진정성(혼마몬) 또한 이 도시의 선구 정신과 창의공부에 넘치는 유희심에 의해 꽃을 피워온 것, 더하여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때로 이단이나 변방으로 여겨지던 것들의 수용과 외부와의 교류에 의해서 짜여진 것을 잊지 않고, 시내 인재가 그 진취성과 유희심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계로 활약의 장을 넓히고 또한 전 세계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뛰어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생각하며 노력을 거듭해 나간다. 이러한 인재를 비롯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이 도시와 어우러지는 가운데 태어나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교토시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더욱 높여가며, 일본 전국·전 세계 사람들로 부터 활동 거점으로 선택받는 도시로 만들어간다.

(3) 몰입과 감동이 넘치고, 계속 배울 수 있다

우리 교토시민은 일상생활 속에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다양한 개성이 수용되어온 이 도시에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 체득하고 싶은 것, 열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간다. 또한 인생과 도시에 대한 이러한 자세를 서로 존중하며 이를 도시의 공기로 만들어감으로써 시외 나아가 국외로부터도 사람이 모이고 열중할 수 있는 것들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간다. 특히 우리 교토시의 미래를 담당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이 도시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통해 풍부하고 같고 닳은 감성을 키우며, 학문에서 예술, 무도, 예도, 나아가 스포츠에 이르는 다양한 것들을 개성에 따라 추구할 수 있는 도시로 계속되도록 한다. 더하여 대학과 박물관, 명승과 사적,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널리 집적되는 것들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가 캠퍼스가 되도록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나이, 성별, 국적, 문화권 등을 넘어 함께 배울 수 있고 열중과 감동이 넘치는 인생과 도시로 나아간다.

(4) 평온과 고요함 속에서 자아와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 교토시민은 이 도시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양성해온 평온과 고요함 속에서 날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계속 성찰하며 타자,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관계 방식에 대해 계속 진지하게 생각한다. 이 도시가 보전해온 정밀(靜謐) [17] 을 후세의 교토시민에게 남길 뿐만 아니라 전쟁과 분쟁의 발생·장기화, 인간관계의 약화, 자연과의 관계의 희박화, 사회적 분단의 심각화 등의 시세가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다른 국가·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자아와 세계에 대해 조용히 깊이 마주할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남는다. 문화를 통해 인간이 인간인 연유 [18] 를 함께 묻고, 인간의 무상함과 연약함, 그리고 존엄함을 함께 느끼며 우리 인류가 국경과 문화적 배경도 뛰어넘어 서로 존중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도시로 계속 남음으로써 인류사회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에 공헌해 나간다.

제2절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함을 품게 하는 도시

(1) 겸허하게 자연과 관계를 이어가는 곳

우리 교토시민은 풍요로운 자연의 은혜야말로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근간이 되어온 것을 잊지 않고 자연과의 공생을 계속해서 지향해 나간다. 또한 이 도시에 사는 우리 교토시민의 사계절 생활의 기반에는 자연이 있고 나아가 자연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사는 생명 중 하나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상 생활과 생업을 영위해 나간다.

더하여 이러한 자연관이 해마다 희박해져 가는 시세 속에서 자연과의 불가분성·일체성을 다시 체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동시에 교토의정서 탄생지로서의 긍지를 유지하고 또한 예로부터 자연과의 공생에 진지하게 임해온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교토시민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해서도 이 자연관이 계승되도록 한다.

[17]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을 가리킨다.

[18] 이유나 근거를 가리킨다.

(2) 재해나 감염병 등의 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하는 곳

우리 교토시민은 이 도시가 천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길러온 유연함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위기에 앞서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

이 도시는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부흥을 이루어왔다. 이 도시가 천년 이상에 걸쳐 도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선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지혜와 공리, 그리고 이들을 체현하고 지탱해온 문화의 힘에 의한다. 과거에 우리 교토시민도 또한 자연재해와 감염병의 위협을 경험하고 극복했지만 그 토대에는 이 도시가 역사 속에서 길러온 중층적인 사람들 간의 끈이 있다.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역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 등이 각각 대비하고 또한 연계·협동하여 방재·감재(減災:재해의 최소화)·복원에 임하는 동시에 이 도시에 대한 애착과 경의를 우리 교토시민은 물론 국내외 사람들까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자연, 역사와 문화, 사람들과의 끈을 계속 지켜나간다.

제3절 자타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시

(1) 다층적이고 느슨한 관계를 이어가는 곳

우리 교토시민은 일본 최초의 초등학교 학군 제도인 반구미소학교 설립에 상징되고 또한 현재는 반상회와 학군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교토시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과 취미나 배움의 장, 상거래, 제례 등을 통해 넉넉하고 열린 관계의 끈을 이어간다. 또한 서로의 직함이나 입장을 뛰어넘어 서로 사람끼리 미소를 나누며 말을 건네며 술잔을 기울 수 있는, 그러한 이 도시 사람들의 운치 있는 삶의 방식을 후세에도 이어가도록 전한다. 더하여 시외로부터 통근·통학하는 사람들부터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교토시와 다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교토시의 현재를 담당해주고 있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다채로운 연결의 끈을 다층적으로 만들어가고 누구나 안심하고 애착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간다.

(2) 서로 돕는 일상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곳

우리 교토시민은 서로 돕는 복지를 지키고 이를 넓힘으로써 누구 아무도 사회로부터 외면 받지 않고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도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경우와 상황에 따라 평소부터 역할을 순환시키면서 서로 도우며 역사와 문화를 이어왔다. 다양한 형태로 이 도시와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미소와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양한 형태로 이 도시에서 도움을 받는다. 지역 사람들이 함께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보고 아이들의 목소리와 미소가 지역에 활력을 준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미소와 감사가 도시 전체로 확산되는 동시에 야간보육사업 등 전국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한 것들도 현재 우리의 교토시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교토시민은 이러한 사회와의 연결과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다층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나답게 계속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

(3)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가치관을 서로 존중하는 곳

우리 교토시민은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등 모든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개성을 발휘하고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면서 “내가 있을 곳”과 “순서”를 찾아 일상을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 이때 일본 최초의 인권선언을 채택한 전국수평사(全国水平社) 창립과 전국적으로 복지사업에 앞장선 교토 라이트하우스 창설을 비롯하여 교토시의 선인들이 실천해온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과 선진적 노력을 계승해 나간다. 모든 개성을 서로 수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우며, 안심·안전 속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고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취업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각자가 바라는 삶의 방식과 생활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간다.

제5장 교토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기본구상은 우리의 최상위 도시 이념인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기 전통의 깊은 이해, 세계 현상의 올바른 인식, 그리고 이상의 실현을 향한 시민의 노력에 의해 도시가 세계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해당 선언의 전망을 염두에 두고 각 장에서 각각에 대해 언급해왔다 [19]. 특히 제4장에서는 해당 선언에서 내세운 영원히 새로운 문화도시로서 평화 아래 자유로운 세계 문화교류의 중심을 담당해 나간다는 이상을 바탕으로 둔 교토에서 사는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자타의 삶을 함께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도시 3가지를 내세웠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을 실현하고 교토시가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계승과 부연(敷衍) [20] 을 통해 세계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는 교토를 살아가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에 달려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선인들로부터 계승한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교토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미래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행운과 책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은 시민, 행정, 시의회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면서 함께 진지하게 논의와 대화를 거듭하고 이를 일상 활동에 반영하며, 그리고 또한 활동의 경과와 결과를 새로운 논의와 대화에 반영해 나가는 선순환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시정의 주체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담당해왔다.

시장은 시민의 생각을 바탕으로 시정 방침을 제시하고, 행정이 이를 실행해왔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와 활동을 행정에 전달하는 동시에 시장과 함께 시정의 양 축 중 하나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19] 각주 7 재계 : 본 기본 구상은 '자기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2장에서, '세계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3장에서, '이상 실현을 위한 시민의 노력'을 제4장과 제5장에서 이어지는 구성으로 했다.

[20] 가치와 개념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도시는 시내에 거주하는 교토시민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교토시에서는 일하고 배우고 즐기기 위해 시외로부터 날마다 발걸음하는 사람들, 진학·취업·육아 등에 의한 전출 후에도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거 관광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방문한 적은 없어도 동경을 품고 있는 사람들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교토시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헌신 아래 성립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래의 시민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과 일상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교토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동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다의적(多義的) [21] 시민성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한 이때 이러한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교토시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설계와 다층적이고 다채로운 귀속의식의 형성과 가시화를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교토시와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물리적·시간적 제약을 넘어 계속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디지털 기술도 활용하면서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의 장을 새롭게 만들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1]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

일본 전체에서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가운데 향후 교토시에서도 행정 직원 수와 예산 제약, 자연의 희박화, 가족·친족 간의 부조 축소 등 공공·공동·사적인 면에서도 각각 도시를 지탱하는 기능이 저하될 것이 예견된다. 한편 지금까지의 교토시에서는 반사회, 시정협력위원, 시민단체, 유지단체와 지역기업, 개별 명칭이 없는 모임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체적이고 헌신적인 활동, 그리고 이러한 단체 간의 연계와 협동이야말로 중층적으로 도시를 지탱해왔다. 인적 자원과 행정 기능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미래에는 새로운 단체와 활동의 조성을 적극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이들과 기존에 해왔던 노력을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는 절도와 금지 아래 세대와 공사의 선을 뛰어넘어 넉넉한 교토시의 도시 성향과 공통된 부분일 것이다. 행정은 항상 이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교토시민의 시점에 서서 그 의견과 제안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정책으로 정리하고 실행해 나갈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공무의 모습을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공공·공동·사적 울타리를 가능한 한 낮춰서 이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교토시민과 각각의 짚거나 얽은 다양한 연결의 끈을 가진 넓은 의미의 교토시민과 연계하여 함께 마을 만들기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든 주체가 “내가 있을 장소”와 “순서”를 찾고 나아가 이들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동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교토시의 앞으로 천년의 역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미래를 향한 질문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에도 있듯이, 이상은 선언하는 것은 쉽지만 그 실행은 어렵다. 그러나 이 도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천년 이상의 세월을 걸쳐 오늘날의 우리의 교토에게 자연·역사·문화·도시의 모습을 전승해 왔다.

교토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수많은 과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 편리함과 쾌적함만을 추구하는 기술혁신이 사람 간의 연결을 약화하거나 재정의해 나가는 가운데, 양자의 균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22].
- 인구구조의 변화를 내다보고 어떻게 공동체와 산업의 모습을 재설계하며, 또한 어떻게 창조해 나갈 것인가.
-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안녕을 관광산업과 어떻게 조화시키고, 전통적인 거리의 풍경과 상거래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적 요인으로 지원·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한편, 지원과 케어를 담당할 인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외면 받지 않는 도시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
- 우리의 일상은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체현하고, 계승해 나간다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 정책과 시민 활동이 최근의 시세와 당장의 과제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지키고 쌓아온 가치관과 사상에 입각할 수 있는가.
- 우리의 교토가 이 도시의 천년 역사에 대해 나아가 앞으로 천년의 미래에 대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가.

[22] 예를 들어 의사소통의 비대면화나 언어표현의 간소화·단순화를 추진해 나가는 종류의 기술조류 및 사회조류가 오랜 시간을 거쳐 이 도시에 뿌리깊게 존재한 신체적이고 암묵 지적인 인간관계의 본연의 방식을 크게 변용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변용이 지역사회의 존속에서 전통의 계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견된다.

이 교토기본구상은 이 도시가 천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양성해온 가치관과 사상을 확인하며, 세계와 일본, 그리고 교토시의 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지역사회의 방식을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본 기본구상은 어디까지나 교토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단서 중 하나이며, 따라서 향후 25년의 교토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본 기본구상을 토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질문은 물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문도 스스로 찾아내어 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끊임없이 논의와 대화를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섬세한 현실 속에서도 진지하게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이야말로 교토가 일본 전국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미래의 인류사회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즉 세계문화자유도시로서 세계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도시의 이상이 실현되어 갈 것이다.

교토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도시가 오랫동안 양성하고 보전해온 인간적 유산의 수혜자이며 계승자이기도 하다. 이 의의와 행복을 날마다 음미하며, 세계문화자유도시라는 도시의 이상 실현을 희구하고, 교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세계와 함께 끊임없이 묻고 계속하면서 삶을 향유하고 계승해 나갈 것을 여기에 다시 조용히 결의하며 [23] 이 교토기본구상을 마친다.

[23] 세계문화자유도시선언의 말미의 한 문장(원래 이상의 선언은 쉽고 그 실행은 어렵다. 우리 시민은 여기에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조용히 결의해 이에 맹세하는 것이다.)에 근거한 것.

교토기본구상의 책정에 관한 내용은,
교토시 정보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시 정보관 홈페이지
2차원 코드